

경주 동천동 소금강산에서 발견된 마애선각여래입상. 사진제공=김환대 씨(경주문화연구원)

마애선각여래입상 발견 통일신라말기 작품 추정

김정화 씨 경주 동천동서

경주시 동천동 석탑해왕릉(사적 제174호) 뒤 소금강산 국립공원에서 통일신라 말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마애선각여래입상(磨崖線刻如來立像)'이 동국대 박사과정에 있는 김정화 씨에 의해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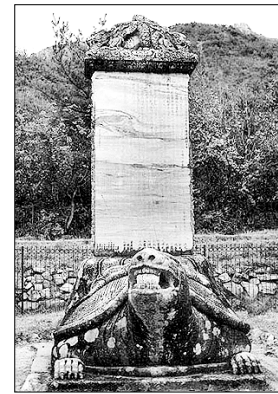
키가 2.46m나 되는 이 여래입상은 마멸이 심한 상태이지만, 얼굴 주변 광배가 선명하고 층을 이룬 옷주름이 훌륭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특히 이 입상은 바위 표면을 다듬지 않고 바위의 자연스런 굴곡을 그대로 살려 '자연미'가 돋보인다. 이는 바위를 인공적으로 평평하게 조성한 다른 경주 신라 불상과 구별되는 특색이다. 또 '경주 남산 선각육존불', '굴불사지 사면 석불상 복면 육비관음보살상'에 이어 경주 지역에서 3번째로 발견된 선각불상으로 회귀성도 지닌다.

또 불상 뒤편의 바위에는 주술 신앙의 흔적으로 보이는 '# 문양이 2개 있어, 토속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불교가 융합되면서 불상이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오유진 기자

도갑사 도선·수미비 백련사 사적비

보물 지정



전남 영암군 '도갑사 도선·수미비' (사진 좌)와 강원군 '백련사 사적비' (사진 우)가 각각 보물 제1395, 1396호로 지정됐다. 4월 16일 문화재청이 밝혔다.



'도갑사 도선·수미비'는 통일신라 도선국사와 조선 수미왕사의 행적을 기록한 1636년(인조 14년)부터 1753년(효종 4년)에 준공된 높이 5.17m의 석비다.

전남 유형문화재 제137호에서 보물로 승격된 '백련사 사적비'는 백련사 불사(佛事)에 참여한 사람의 인명이 기록된 높이 4.47m의 석비다. 이 사적비는 귀부와 비신이 각각 고려, 조선 시대에 제작돼 건립연대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양 측면에 양각된 초화문은 이 시대 석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예다.

오유진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9>



은유로서의 질병

조류 독감이나 사스(SARS), 그리고 광우병 등으로 저너 뉴스가 시끄럽다. 사람들은 '말세'라 말하며 마치 자연이 잘못되어 조용히 지내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생매장하는 처참한 화면이 TV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무서움이 아닌 '인간이 지닌 탐욕'의 무서움을 느낀다. 인간은 오직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욕심 하나로 과도하게 밀집된 사육 환경을 조성해, 늘 자연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질병이 극도로 드러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구가 밀집한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출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

더불어 이구동성으로 방역의 미비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인간의 오만'을 본다. 현대 과학이나 지식의 힘으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순진한 어리석음 말이다. 양날이 선 칼과 같은 과학이라는 수단으로 오직 생산성을 추구하는 인간 위주의 관점에서 출발한 밀집된 사육환경과 자연 질서 파괴가 대규모의 전염병, 광우병 등 새로운 질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 속의 채워질 수 없는 탐욕과 오만임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우리 사회는 분야를 막론하고 생산성을 추구하며 열심히 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의 생산성

오만 탐욕, 질병 만드는 직접 원인

'실체 없음' 진리 깨달을 때 고액 초월

틀보다 결핍 가능성이 몇 천배나 낮은 조류독감이, 그토록 너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쩌서일까? 평소 축산에 관심도 없던 우리들이 보이는 과민한 모습에서 나는 '인간이 지닌 막연한 두려움'을 본다. 언론의 부추김으로 증폭되는 집단적 터질 듯한 두려움은 결국 자신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유한한 생명체로서 느끼는 불안감일 뿐 결코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물을 무자비하게 생매장하고, 이를 연일 전쟁 상황 중계하듯 보도해 두려움을 재생산하는 언론이나 이를 보며 불안에 떠는 우리들의 마음은 보신을 위해서라면 뱀을 멸종되도록 잡아먹고 살아있는 곱쓸개에 관을 꼽아 즙을 마시는 이 시대의 광기에 가까운 이기적 인간 심리의 변형일 뿐이다.

항상이란 과연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추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떠한 것이든간에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일어나며 우리 속의 막연한 두려움이란 마치 신기루처럼 자기가 지어내어 스스로 그 안에 들어앉아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임을 깨어서 바라보아야 한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이 자신을 포함하여 육근(六根)으로 지어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음을 보여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이를 통해 모든 고액(苦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간명하게 말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역학교실



불교무형문화재 전승·보존 이대로 안된다 / 불교계 무엇을 해야 하나

분분한 의견 모아 '로드맵' 그리자

제대로 된 인재 발굴·양성의 '틀' 필요

중앙기구 설립해 원형보전 등 주도해야

"불교 전통 문화는 불교계 스스로가 발굴, 전승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전통 문화를 살리지 못해 불교계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꼴이라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분명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종립학교에서 전통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불자 교사들이 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늘리고, 전국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불교학생회를 육성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교육현장을 바꾸자

불교무형문화의 맥을 제대로 잇기 위해서는 인재발굴이 가장 급선무다. 판소리계의 '유태평양'과 같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종립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데, 종립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용어정리부터 다시

제도적으로는 '정보보존법'을 한국 불교의 실정에 맞게 고쳐, 성보문화재의 개념 정립, 용어정리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은 "현재 정보보존법은 국가 지정문화재 분류에 '성보', '불교'만을 대입해, 한국 불교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정보보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 소장은 "국가 지정무형문화재의 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단청장의 경우, 단청과 불화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요무형문화재에서는 하나의 문화재로 분류했다"며 분류의 세분화를 주장했다.

전통사찰 건물 하나를 지을 때에도 대목장, 소목장, 목공예장, 단청장, 석공, 와공 등 필요한 장인이 다양하다. 영산재는 법패·작패·도량장염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법패도 바깥채비·안채비·화청으로 나눌 수 있다. 단청도 사찰과 궁궐 단청이 달라 구분 가능하다.

지정문화재 외에 사찰 문화 속에서 가사장, 사찰 음식 전문가, 발원문이나 불교 음악의 노랫말을 쓸 수 있는 문화인도 발굴해야 한다.

원형자료에 관심을

이렇게 발굴된 무형문화는 후대에까지 전해지도록 원형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현재 문화재연구소에서 중요무형문

화재에 대한 기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불교역사·문화적 시각에서 사진, 녹화, 녹음 등의 원형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불교계가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연구자 지원을 활성화해 이를 심도 깊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구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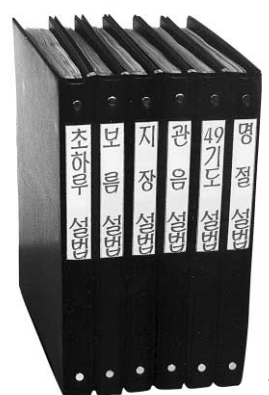
힘있는 불교문화행정을 펼칠 중앙 기구의 설치도 적극적 대안의 하나다. 범종단적으로 불교문화보존 기구를 만들어 전통문화 발굴, 성보문화재 관리,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기구의 운영재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사찰 관람료 일부를 '문화재보존기금'에 투자해, 재정이 확보된 공신력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불교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는 각계에서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적과 대안을 충분히 수렴, 최선의 '길'을 찾고 이를 토대로 '로드맵'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 역시 국가와 불교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현대설법

설법이 살면 법회가 살고, 법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프리즈나(6권) 35만원 → 19만원<특별가>

6권(일반)의 종류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 49일천도, 명절

2권(특별)의 종류 방생, 영가 천도, 각종 특별 행사 기도 법문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가족법회, 일요수요 법회, 학생회, 대학생, 청년회, 공무원, 회사원, 교수 교사 군 불자 법회나 가족 모임, 수련대회 각종 불공과 기도 법문 준비 시간에 다른 불사를 성취하십시오. 그러나 법문 내용에 소홀하지는 마십시오.

주제별 재일별로 독특한 구분 / 자유자재 응용 / 1편 분량 25분 소요 / 경전근거 / 시원한 활자 크기 / 겸친 내용 없음 / 수많은 특별 사례 소개/1편씩 분리 가능

찬탄과 헌공으로 가는 계획된 감동 / 진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명 법문 / 영험을 건져내는 새로운 눈빛



부다처러다 설법집(6권)



다르마 설법집(6권)



칸치푸람 설법집(6권)



아쉬바지트 설법집(6권)



특별설법집(2권)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도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 정진만 있고 법회와 설법이 없습니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한정 제작에 들어간 <프리즈나>에도 눈 밝으신 법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설법준비 염려없습니다 ★

현대설법연구소 (031) 968-6663 경기도 고양시 화정달빛 401

안내책자 발송중!